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가운데)이 12일 여수세계박람회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등과 전시관 건설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최고의 엑스포 만듭시다”

유치 주역 정몽구 회장 여수 찾아 지원 약속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주역’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엑스포 개막을 120일 앞두고 박람회장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이자 여수시 명예시민인 정 회장은 12일 여수를 방문, 강동석 조직위원장과 김충석 여수시장을 만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이어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 준비현황을 살펴본 뒤 전시관 건설이 한창인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진척상황과 운영시스템, 각종 부대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정 회장은 주요 전시관의 공중률이 90%를 넘어섰다는 설명을 듣고는 “짧은 시간 동안 공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수엑스포 관계자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해양 엑스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여수시를 방

문, 김충석 시장으로부터 “특급호텔 건축 등 숙박여건이 향상된 만큼 그룹행사를 앞으로 여수에서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처럼 여수세계박람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 유치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에 공헌한 ‘인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식후원사 최상위 등급인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행사 및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국내는 물론 CNN과 BBC 등 해외의 유수 매체에 방영되는 TV광고를 통해 여수엑스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엑스포 전시장 내에 1398㎡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관을 건립해 행사 기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주승용·김충조·김성곤 의원 등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여수엑스포 유치에 공이 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훈장 수여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총선 D-90, 민주통합당 공천 틀 어떻게

완전국민경선제 대세 여론조사 도입 미지수

나라당이나 오는 17일 4월 총선 공천 ‘틀’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틀’ 논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통합당의 ‘공천 틀’은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국민참여경선 70%와 전라공천 30%라는 혼돈만 정해졌을 뿐이다. 오는 15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경선 틀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지도부 구성엔 현역의원 컷 오프 가능성
야권연대 성사엔 호남지역 3~6석 양보 전망

아무리 늦어도 3월말까지 공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순에는 경선 틀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경선 틀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뒷받침 광주·전남 등 호남의 경우,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야권연대 등의 변수가 있어 3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선 틀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당원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시민 참여’라는 대세를 거스르기는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지도부의 다수를 구성할 경우, 경선 틀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 공천을 통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 경인을 명분으로 구 민주계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최소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여론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예 컷-오프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시민 참여가 최대화되는 것은 물론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신인들에 대해 가산점이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연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통합당은 전라공천을 통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호남 기득권 양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 최소 3석, 최대 6석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J프로젝트 부동산지구 개발 무산 위기

문광부 “타당성 없다” 결론...전남도 “소송 불사” 반발

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부동산지구 개발이 끝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국제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기로 하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J프로젝트 부동산지구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한국계

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경우 전남도가 2009년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뒤 2년 동안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서게 된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2010년 11월 9

알림

Kim Gun Mo

The 20th Anniversary Tour

2012년 2월 25일(토) 오후 4시 30분 |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국민가수’ 김건모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자서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특히 김건모의 가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콘서트입니다.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첫사랑” 등이 수록된 데뷔앨범부터 성공가도를 달려온 김건모는 20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1000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기록해온 한국의 대표가수입니다.

지난해 9월 13집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건재를 과시한 김건모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잘못된 만남’, ‘첫사랑’, ‘미안해요’ 등 지난 앨범 히트곡들과 ‘어제보다 슬픈 오늘’, ‘자서전’ 등 새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KCTV광주방송 | 주관 | 공연마루
| 문의 | 062-220-0541, 1588-0766
| 예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분석 영역’에 대한 보고회에서 “부동산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경제성이 1.0 이하로 예측돼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문광부 입장이 통보되는대로 행정심판·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와대 조정회의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영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민간주도 개발사업임에도 대규모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

토리 일대 14.18km(429만평)에 골프장·위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편입생모집

~1월17일(화)까지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062)605-1114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비스업 재해다발 7대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업 안전+(더하기)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1월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사업개요

서비스업 재해다발 7대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방문캠페인을 전개하여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7대업종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및숙박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 사업서비스업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비영리 조합, 비영리 단체

※ 비영리기관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준 포함)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공모기간

2012. 1.13(금)~ 2012. 1.19(목) (7일간)

※ 사업설명회 : 2012. 1. 16(월) 15:00 ~ 광주지역본부 11층 소교육장

신청방법

공모참여신청서(제안서, 비영리법인지정서 1부 등)를 지역본부 서비스재해예방팀에 제출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간 : '12년 3월 ~ 12월 (10개월)
- 사업물량 : 30만 개소

사업수행 절차

수행업무 및 방법

- 수행업무 : 업종별 다발 재해사례 전파 및 예방대책 제시
- 자료보급 : 재해예방 정보자료 보급
- 안전교육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간이식 안전보건 교육실시
- 수행방법 : 사업수행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수행
- 사업수행요원 채용 : 업무위탁기관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
- 수행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양 교육(2박3일) 필수 이수

수행업체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공모 시 제출한 제안서 심사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지역본부 단위 물량이 5만 개소 이상인 지역본부(서울, 경인)는 지도원별 수행기관 선정 가능
- 선정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충족도, 사업수행 능력평가, 수행계획 적정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 제출된 공모참가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고문 참조

구 분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사업물량	99,000	40,000	24,000	80,000	29,000	28,000
용역금액(성과급)	1,207(36.6)	488(14.8)	292(8.8)	976(29.6)	353(10.7)	341(10.3)
수행지역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충북, 충남
문의처	02)828-1665	051)520-0592	053)609-0561	032)570-7266	062)949-8782	042)620-5651

※ 성과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6등급, 50~100%) 지급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